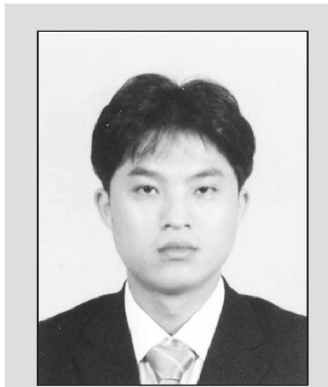


“좀 더 안전한 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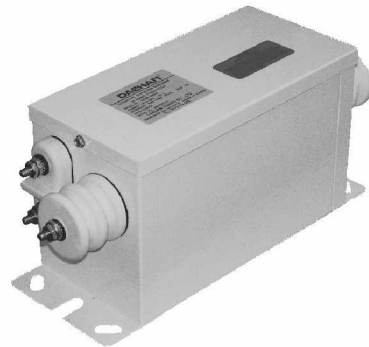
(주)대한트랜스 대표이사 김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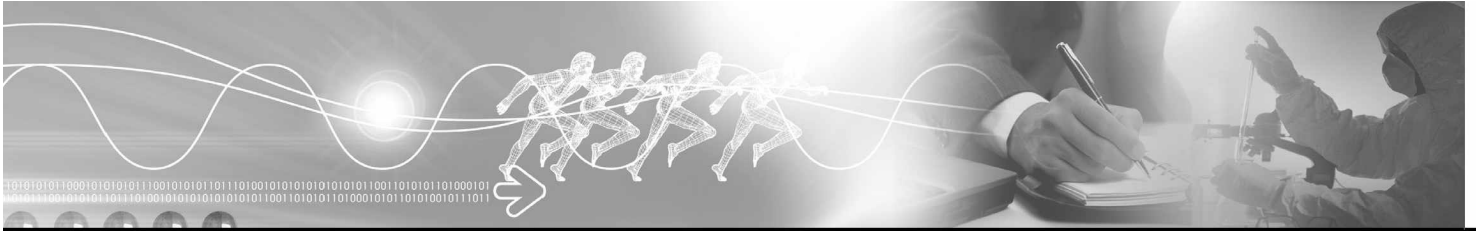


대표이사 김진환

채널, 변압기, LED 및 네온 등의 유통망을 모두 통합하여 전문화된 채널 종합사인 시장에서 폭풍을 일으키는 업체가 탄생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과거 30년이 넘게 산업용 및 광고용 변압기 생산에 전념해온 (주)대한트랜스가 진액 출자해서 설립한 광고·조명 디스플레이 전문회사(주)싸인피아가 이 가운데 서 있다.

“한국 제품이 세계시장의 여기저기에서 최고수준으로 인정받는다는 즐거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벽찬 희망과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열의와 향수 때문에 지의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요즘에는 특히 기술연구소를 찾는 저의 잦은 발길이 저절로 빨라짐을 스스로 느낀 때가 많습니다. 이미 저희 회사는 세계 각지의 시로 상이한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기술력을 갖추었고 이를 세계 바이어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 심지어 러시아에 있는 각양각색의 바이어들로부터 구매제외가 다루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우뚝 서는 그날을 향해 더욱 노력하고 매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11 동안 신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지난 7~8개월간 유럽 등지의 해외의 우수마이이들과 폭넓게 접촉하며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닳어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유럽, 호주, 러시아 등에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여년 전인 1972년에 대한전기공업사로 출발하여 31년 동안 오직 변압기 분야에만 골몰해온 대한트랜스가 최근 유럽형 자체진단형 내온변압기의 개발을 끝내고 FX인증준비중이라고 김진환 사장은 힘주어 말했다.



이번에 개발완료한 유럽수출용 변압기는 국내 시장은 물론이지만 전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설계한 최첨단형으로, 심플한 디자인, 장수명, 최적의 절연체 사용, 빌트인(built-in) 타입으로 내장돼 있어 대인접촉시 또는 이상작동시 전력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김사장은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지난 10여년간의 끊임없는 개발의 성과로 대한트랜스는 여타 경쟁업체보다 월등하게 높은 절연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서 “높은 성능의 절연재를 도입한 이번 신제품은 재선계를 통해 각국가의 습관이나 전기식 특성에 적합한 제품으로 응용하여 생산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정직·질서·창조”의 사훈을 높이 내걸은 대한트랜스는 기존의 내온변압기보다 가격면에서

30%가량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내구성 검사기준이 까다롭고 차단장치를 필수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UL기준에 합격하여 미국시장 수출에 적극적으로 성공하였다. 그래서 미국의 변압기 제조회사 액다우에 3년 동안 600만달리(65억원) 가량의 규모를 수출하고 있다고 김사장은 토론했다.

1만 5000V의 고압 전력이 흐르는 내온사인은 오늘날의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둔갑해 있다.

내온사인을 켜는데 필요한 전압을 만들어 주는 내온관용 변압기는 고열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누전, 삼전에 위험성이 있어 화재나 산상의 우려가 높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으면 전기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센서를 부착하는 자기진단형 내온관용 변압기를 대한트랜스에서 자체 개발하게 된 것이다.

김사장은 이어 “사고의 위험성이 일반인의 생각보다는 엄청 높은 내온 사인이 우리생활과 거리무화에 밀접해 있다”면서 “그러나 일반인들은 사고는 절대로 나지 않겠지하는 안일한 생각, 즉 일종의 만성적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내온 변압기가 오늘, 내일로 켜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오늘날 살고 있는 문화인들의 필수품이라면 더 늦기전에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급보다는 훨씬 강화된 전기용품안전기술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기술기준에는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값싼 변압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불량 변압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 뿐입니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태이며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 참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시정이 필요하다고 김사장을 말한다.

김사장에 의하면, 우리 시장에서는 변압기를 구입할 때 안전보다는 가격을 중시한다고 개탄하면서 “미국에서는 가격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선진화된 국가”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회풍토가 하루빨리 정착하

여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최근에 우리 정부의 대기전력(stand-by power)의 감축과 더불어 에너지 고효율 기기의 생산과 사용을 일종의 국가정책으로 설정하고 이의 필요성 확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흐름에 부응하여 (주)대한트렌스에서 안전 송도연구단지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신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절전형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해 시 에너지 고효율 마크를 획득하였고 그동안 축적된 변압기와 관련된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신제품 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준**